

한말 지식인의 動向과 東學

黃渭周*

- I. 머리말
- II. 19세기 조선의 話頭
- III. 지식인의 일반적 動向
- IV. 東學의 자리와 역할
- V.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후반 세계사적 격동기에 조선에서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할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들이 제각각 시국을 인식하고 대응한 자세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와중에 생겨난 동학의 위상과 역할은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19세기 조선이 당면한 화두는 2가지였다. 하나는 내정개혁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西學과 外勢에 대한 대응 문제였다.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대응 방식은 다양하였는데, 단순히 정리하면 (1)척사위정 (2)위정개화 (3)개화변법 (4)척사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척사위정계열 지식인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儒林이 대표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흥선대원군과 그 측근 雲邊人이었던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wzhwang@knu.ac.kr

데, 운변인의 척사위정은 유림의 그것과 결이 다소 달랐다. (2)위정개화계열 지식인으로는 먼저 초기개화론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정에 영향력 있는 高官 자제를 교육함으로써 처음으로 개화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다. 다음은 고종의 개국정책을 지원한 일부 중앙관료와 민비 척족인데, 이들은 東道西器論으로 고종의 개국정책을 옹호하였다.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각종 해외 사행에 참여한 인물도 이런 계열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개화변법 계열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3)개화변법계열 지식인은 갑신정변 주도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2~30대 젊은이였다는 공통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갑오개혁을 주도한 인물인데, 갑신정변 직후 해외로 망명한 사람이 많았으며, 위정개화 계열 인물 가운데 동참한 이도 적지 않았다. 동학은 척사를 지향하면서도 유교적 가치에 근거한 위정은 거부하고, 변법을 지향하면서도 외세 의존적 개화를 거부한, (4)척사변법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이래 당면한 내정개혁과 외세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최제우 당시 이미 수천 명의 교도가 생겨났고, 제2대 교주 최시형 당시에는 수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마침내 전국에 걸친 갑오농민운동으로 구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동학은 天道敎를 개창하고 개화변법 계열 지식인을 수용하여 문명개화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기미독립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역사에 가장 빛나는 족적을 남겼다.

◆ 주제어

韓末, 지식인, 斥邪, 衛正, 開化, 變法, 儒林, 崔濟愚, 東學, 天道敎

I. 머리말

19세기 후반 韓末이란 시기는 우리가 유사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이 전지구적으로 자행된 참으로 험난한 시기였다. 영국의 산업혁명(1760)과 프랑스혁명(1789)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 과학 종교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무장한 서구가 쓰나미처럼 밀려들었고, 여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결정되었으며, 100여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전환기적 상황이었다.

아시아의 경우, 이런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지역은 인도와 남아시아로, 인도는 영국군의 인도정벌과 무굴제국의 멸망(1858)으로 일찌감치 영국 식민지로 전락하였고,¹⁾ 뒤를 이어 프랑스의 월남 식민지화(1862)와 캄보디아 정벌(1863)이 이어졌으며, 마침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이 성립(1887)되기에 이르렀다.²⁾ 오랜 세월 아시아의 맹주로 자임해 온 중국은 아편전쟁(1840)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청일전쟁(1894)으로 요동반도와 대만을 할양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식민지로 전락함은 간신히 면하였고, 일본은 명치유신(1868)을 통해 아시아 속의 서구로 변신함으로써 작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조선은 이런 열강의 각축 속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일본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듯 급박하게 돌아간 격동의 시기에 조선에서 이른바 글을 아는 知識

1) 영국은 1600년에 이미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무역 거점으로 삼았고, 1765년 인도 동북부 벵골만 지역 영유권을 획득하여 사실상 식민 지배를 시작하였으며, 1857년 세포이반란(동인도회사 傭兵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무굴제국을 멸망시키고(1858) 직접통치를 시행하였다.

2) 기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모두 일찍 유럽 혹은 미국 식민지가 되었다. 필리핀은 1571년부터 300년 이상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 1898년 다시 미국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인도네시아는 1824년 네덜란드 식민지로 확정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1841년 일부 지역(사라왁)이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888년 무렵에는 거의 전 지역이 영국 보호령이 되었다.

人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제각각 시국을 인식하고 대응한 자세는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전국에 걸쳐 수만 명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겠다고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던 동학농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본고는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단을 간단히 정리해서 발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시기를 전공한 역사학자가 아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도 따로 연구를 진행한 바 없다. 다만 한문학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한문시대가 가고 한글시대로 도래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시대와 관련된 개인적 지식정보의 전부이다. 따라서 동학 관련 학술대회의 기조발제자로 어렵게 호출받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논리와 정보를 제시할 형편은 못 되며, 그저 한문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거칠게 조망함으로써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II. 19세기 조선의 話頭

19세기 조선의 화두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내적으로 부단히 축적되어 온 부조리를 바로잡는 내정개혁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17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유입 확장된 西學과 外勢에 대한 대응 문제였다.

먼저 내정개혁의 경우, 조선후기는 새로운 왕조 건설에 버금가는 전면적인 개혁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막부로 교체되었다(1603). 중국 또한 명이 망하고(1644) 淸이 들어섰다(1616). 그만큼 후유증이 심각하였다는 말이니, 전쟁의 현장이었던 조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왕조가 교체되지 않았고, 이에 버금가는 개혁을 하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치열한 권력투쟁의 와중에 北人은 완전히 거세되고, 남인

또한 甲戌換局(1694) 이후 대부분 정권의 핵심부에서 밀려났으며, 이후에는 사실상 노론과 소론 일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1800) 이후 왕통을 계승한 국왕이 예외 없이 모두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³⁾ 국가권력이 외척 세도가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며, 이 때문에 몇몇 집안이 어린 국왕을 끼고 권력을 농단하는 이른바 세도정치 시대(1800~1963)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내정개혁은 생각도 못하였다. 영·정조 시대에 그나마 융통성 있던 학문풍토는 더욱 경직되고, 과거시험과 인재 등용의 길은 더욱 문란해졌으며, 민생과 직결된 三政紊亂은 『經世遺藁』 『牧民心書』 등에 지적된 그대로였다. 18세기 실학의 학통을 계승한 근기남인 계열의 丁若鏞(1762~1836)과 李學逵(1770~1835), 북학과 계열의 李書九(1754~1825)와 金正喜(1786~1856), 서양 학술에 조예가 깊은 李圭景(1788~1863)과 崔漢綺(1803~1877) 등이 있었지만, 정약용과 이학규는 오랜 유배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고, 김정희 또한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이규경과 최한기는 평생 재야 학자로 일관하였다. 당시 국제정세에 밝고 현실적 개혁안을 제시할만한 실학자가 모두 세도정권의 질은 그들 속에 매몰되고 말았던 것이다.

처럼 세도정치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실학과의 학술적 전통마저 사그라짐에 따라 흥흥한 민심을 반영하는 각종 民亂과 掛書 逆謀 사건이 속출하였다. 평안도에서 발생한 홍경래의 난(1811)을 비롯하여 철종12년(1862)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임술민란(1862)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야기된 각종

3) 순조(1800~1834)는 이복 형 문효세자(文孝世子)가 요절한(1786. 5세) 까닭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11세에 가까스로 세자에 책봉되어(1800.1) 5개월 만에 왕이 되었고(1800.6), 헌종(1834~1849)은 부친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일찍 서거한(1830. 21세) 까닭에 역대 국왕 가운데 가장 어린 8세로 왕이 되었다. 철종(1849~1863)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느닷없이 불려와 덕완군(德完君)에 봉해진(1849.6) 다음 그 이튿날 19세로 왕이 되었고, 고종(1863~1907) 또한 왕통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지만, 조부 남연군(南延君)이 정조의 이복동생 은신군(恩信君)의 양자가 되고, 자신 또한 대원군(大院君)의 차남으로 효명세자의 양자가 되는 우여곡절 끝에 12세로 왕이 되었다.

사건 사고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먼저 그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 1811년(순조11년) : 평안도 洪景來 난. 3천여 명의 반란군 체포 처형.
지역 및 신분차별 철폐와 정권타도 목적의 반란.
- 1813년(순조13년) : 제주도 梁濟海의 난. 50여명 체포 처형.
京來官을 몰아내고 제주도의 자치를 주장함.
- 1815년(순조15년) : 10월. 경기도 용인 李應吉의 총포 난동사건.
- 1817년(순조17년) : 柳七在 洪燦謨 등의 凶書事件.
1801년 이후 수렴청정 등을 비판하는 上書 모의.
- 1819년(순조19년) : 경기도 화성 掛書事件. 8월. 掖隸와 院隸의 모반사건.
- 1826년(순조26년) : 충청도 청주 朴亨瑞 등의 胥吏사건.
조선왕조 멸망을 예언하고 홍경래 생존 선전.
- 1829년(순조29년) : 11월. 강화도 해적 金守溫 등 10명의 모반사건.
조정 貨穀船 탈취와 도성 放火를 모의함.
- 1836년(헌종 2년) : 南膺中 모반사건. 핵심 가담자 20여명 처형.
恩彦君 손자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 모반사건.
- 1839년(헌종 5년) : 기해사옥. 앵베르, 모방, 샤스탕과 많은 신자 처형.
- 1844년(헌종10년) : 李遠德(醫員) 閔晉鏞(武夫) 등의 모반사건.
헌종의 형 懷平君을 추대하려 한 모반사건.
- 1852년(철종 3년) : 10월. 황해도 金應道 蔡喜載 등 모반사건.
소현세자 후손을 무력으로 추대하려 한 사건.
- 1862년(철종13년) : 임술민란. 전국 70여개 고을에서 일어난 민란.
2월 진주 단성, 4월 전라, 5월 충청으로 확산됨.
- 1863년(철종14년) : 崔濟愚 등 동학교도 20여명 체포 압송.
최제우는 1864년 3월 10일 대구감옥에서 처형.

위와 같은 민란과 사건 사고는 발생 배경이나 규모, 성격, 지향점 등이 제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를 야기한 주모자나 적극 가담자가 대부분 몰락 양반이거나 중인 이하 신분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홍경래는 사마시에 낙방한 평안도 출신 몰락 양반이었고, 김응도와 채희재는 황해도 출신,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경상도 출신의 몰락 양반이었으며, 양제해는 제주도의 토호, 이원덕은 의원, 민진용은 武夫, 김수온은 상인, 이응길 유철재 홍찬모 등은 건달,⁴⁾ 남응중은 충청도 목천에서 생활한 피란민이었다. 그 동안 권력에서 소외되고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던 중하층 인물들이 민란과 역모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아 나선 형국이었던 것이다. 19세기 조선은 이렇듯 이미 기존의 통치이념과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런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당면한 화두였다.

다른 하나는 서학과 외세에 대한 대응 문제였다. 조선에서 서학을 처음 접한 것은 임진왜란 직후였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나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천주실의』의 여러 篇目을 소개한 데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 선각적 지식들이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한 서적을 입수하여 독서 대상으로 삼았다.

○ 天文·曆算 관련(11종) : 『西洋方星圖』, 『星土圻開圖』, 『西國渾天圖』, 『渾蓋通憲圖說』, 디아스(Diaz, 1574~1659. 陽瑪諾)의 『天問略』, 『治曆緣起』, 아담 샬(Adam Schall, 1591~1666. 湯若望)의 『時憲曆』, 『簡平儀說』, 『日月蝕推步』, 마테오리치(1552~1610. 利瑪竇)의 『幾何原本』 등 // ○ 地理 관련(5종) : 萬國全圖, 大地全圖, 페르비스트(Verbiest, 1623~1688. 南懷仁)의 『坤輿圖說』, 『乾坤體義』,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 艾儒略)의 『職方外紀』 등 // ○ 종교서적(3종) :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 利瑪竇)의 『天主實義』, 판토하(Pantoja, 1571~1618. 龐迪我)의 『七克』, 『主制群徵』 등 // ○ 聞見한 西洋文物(6종) : 西國視遠鏡, 羅鏡, 鑿鑿(안경), 西洋畫, 西洋水庫, 龍尾車(풍차) 등 // ○ 기타(3종) : 『遠鏡說』(갈릴레오 망원경), 『泰西水法』,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交友論』 등. *전체 약 28종⁵⁾

4) 李應吉 柳七在 洪榛謨 등은 1852년(철종 3년) 10월 황해도에서 일어난 金應道와 蔡喜載의 모반사건에 적극 가담하였던 인물이다.

5) 韓祐勳, 『星湖李瀛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49쪽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위는 이익(1681~1763)이 읽고 참고한 서학 관련 서적과 물품들이다. 이를 보면 그가 참으로 다양한 책을 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 『천주실의』 『직방외기』 『성토키개도』 『천문략』 같은 책에 발문을 지어 자신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⁶⁾ 이후 이와 같은 서적에 대한 독서는 주요 근기남인 실학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나갔다. 이익의 핵심 제자 가운데 이런 책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들 중 일부는 경기도의 走魚寺나 天真庵 등을 근거지로 삼아 강독 모임을 개최하였으며(1777~1781), 權哲身 權日身 형제와 李檠 李承薰 丁若鍾 등 이른바 鹿菴契의 일원들은 西敎를 신앙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조선천주교회를 창설하기에(1784) 이르렀다.⁷⁾

북학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학파는 노론 집권층 자체가 많아서 이런 서책을 접하기에 오히려 더 유리하였다. 홍대용이나 박지원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북경을 직접 방문하여 서양 선교사를 만나고, 새로운 서적 수입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이런 경험을 저술로 남기기도 하였다. 홍대용이 劉松齡(August von Hallerstein) 鮑友管(Anton Gogeisl) 같은 선교사와 대화한 내용을 『劉鮑問答』으로 남긴 것, 서학서적 약 19종을 집대성한 『天學初函』을 반입한 것,⁸⁾ 박지원이 북경에 가서 天主堂과 마테오리치

6) 이런 글들은 『星湖集』 卷55 題跋 부분에 「跋天主實義」 「跋職方外紀」 「跋星土圻開圖」 「跋天問略」 등과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7) 李承薰이 1784년 북경에서 처음 영세를 받고 돌아와 李檠 丁若鍾 등에게 세례를 주고 명례동 金範禹의 집에서 정기적인 신앙 모임 개시하였는데, 이를 조선천주교회의 창설로 간주한다.

8) 『天學初函』은 서양 선교사들이 저술한 서적 약 19종을 明末에 李之藻가 집대성한 53권의 방대한 책이다. 전체를 西敎 관련 理篇과 西器 관련 器篇으로 구분한 다음, 理篇에 알레니의 『西學凡』 1권, 마테오리치의 『畸人』 2권, 『交友論』 1권, 『辨學遺牘』 1권, 『二十五言』 1권, 『天主實義』 2권, 판토자의 『七克』 7권, 삼비아시의 『靈言蠡勺』 2권, 알레니의 『職方外記』 5권 등 9종, 器篇에 울시스의 『泰西水法』 6권, 마테오리치의 『渾蓋通憲圖說』 2권, 『幾何原本』 6권, 울시스의 『表度說』 1권과 『簡平儀說』 1권, 디아스의 『天問略』 1권, 마테오리치의 『同文算指』 10권, 『圓容較義』 1권, 『測量法義』 1권, 『測量異同』 1권, 『勾股義』 1권 등 10종을 수록하였다. 홍대용은 중국에서 만난 潘庭筠에게 수차 편지를 보내 이 책의 구입을 부탁하여 입수하였는데, 전체가 다 들어왔는지는 불분명하다,

무덤을 찾은 것, 「鵠汀筆談」에서 천주교의 중국 전래 경위를 소개한 것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⁹⁾

영·정조 시대에는 이렇듯 실학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서학에 대한 독서가 점차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여 현실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유학자들의 반론과 비판 또한 아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비화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이승훈(1756~1801)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와 조선천주교회를 창설한(1784) 이후 서학은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학문적 관심, 즉 西器의 차원을 넘어섰다. 西教를 종교로 받아들인 일부 지식인들이 적극 전교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인 周文謨 신부의 입국(1794) 이래 서양 선교사들이 부단히 들어와 전교활동에 투신함으로써 마침내 종교의 문제, 곧 西道의 차원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여기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노론 벽파와 세도정권이 이를 정권안보와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킴으로써 심각한 邪獄을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1801년. 辛酉邪獄. 초기 교회 지도자와 신도 300여명 처형.

李承薰 丁若鍾 처형, 李家煥 權哲身 옥사, 丁若銓 丁若鏞 유배.

1801년. 9월. 黃嗣永帛書(113311자) 사건. 사전에 발각, 능지처참.

9) 박지원의 西學 관련 독서 상황은 金明昊의 『연암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 제2부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에서 자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10) 서학에 대한 경계와 반론으로는 성호 우과계열 학자인 愼後聘의 「西學辨」, 安鼎福의 「天學考」와 「天學問答」, 李森煥의 「洋學辨」, 영남담인 학자인 申體仁의 「天學宗旨圖辨」, 南漢朝의 「李星湖天主實義跋辨疑」 「安順菴天學或問辨疑」, 鄭宗魯의 「書天學考後」 「又書天學考後」, 노론계 학자인 黃景源의 「耶穌像災記」, 李獻慶의 「天學問答」, 丁範祖의 「四編證疑後說」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李萬運의 「答南宗伯論天學辨」, 趙述道の 「雲橋問答」, 崔璧의 「問邪學」 같은 論辯類, 安鼎福의 「答李注書休吉書」와 「與權既明書」, 柳長源의 「答南宗伯」, 鄭宗魯의 「答李德懋」, 南漢朝의 「與順庵安丈」, 黃德壹의 「與愼文玉書」 같은 편지, 柳長源의 「南漢朝行狀」, 黃德吉의 「順菴安先生行狀」 같은 行狀, 尹椿의 「人有賦關邪行者乃次之」, 金養根의 「時事志感」 같은 詩도 참고할 만하다.

항사영이 신유사옥 전말을 북경 구베아(Gouvea) 주교에게 알린 밀서.

군사력으로 조정을 굴복시켜 신앙의 자유를 보장케 하라고 건의.

1815년. 乙亥邪獄. 경상 충청 강원도 지역 교인 색출, 다수 처형.

1816년. 丁若鍾의 2남 丁夏祥(1795~1839)이 북경 입경, 신부 파견 요청.

1824년. 교황청에 신부 파견 요청하는 장문의 서한 발송. 역관 劉進吉.

조선을 교황청 직속 포교지로 지정, 파리 외방전교회에 포교를 맡김.

1831년. 9월 조선을 독립교구로 지정, 제1대 교구장 브뤼기에르(Bruguière) 임명.

1833년. 로마 유학생 출신 중국인 신부 劉方濟 입국.

1836년. 1월. 모방(Maubant) 신부 입국, 정하상(丁夏祥) 집에 체류하며 포교활동.

1836년. 4월. 앙베르(Anvers) 신부를 조선교구 새 주교로 임명(제2대).

1837년. 1월. 샤스탕(Chastan) 신부 입국, 12월 앙베르 주교 입국.

1838년. 金大建 崔良業 崔方濟 등 마카오 유학, 신부 수업.

1839년. 4월. 己亥邪獄. 앙베르, 모방, 샤스탕 등 서양 선교사 처형.

정하상(丁夏祥) 劉進吉 등 교회재건운동 관계자와 신도 100여명 처형.

1845년. 10월 페레올(Ferréol) 주교(제3대) 다브뤼(Daveluy) 신부 동반 입국.

1846년. 丙午邪獄, 金大建 신부 처형. 신자 다수 처형.

프랑스 동양함대 군함이 홍주로 들어와 선교사 학살 문책 및 통교 요구.

1849년. 마카오 신학교에 유학한 崔良業 신부 입국.

1856년. 제4대 베르너(Berneux) 주교 입국. 11명의 프랑스 신부와 함께 전교.

1860년. 庚申邪獄. 林泰瑛 신명순(申命淳) 등이 천주교인 부락 급습, 체포.¹¹⁾

위를 보면 19세기 이래 신유사옥(1801), 을해사옥(1815), 기해사옥(1839), 병오사옥(1846), 경신사옥(1860) 등 西敎를 탄압한 크고 작은 사옥이 부단히 연속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 사옥이었던 신유사옥이 정조 사후 노론 벽파의 남인 시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고, 기해사옥이 세도정권 내에서 풍양조씨가 안동김씨를 공격하는 방편의 일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¹²⁾ 19세기 서학의 문제가 더 이상 학문적 차원이 아니

11) 이것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천주교회사』 2~3책(2010)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중요한 사건만 따로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12) 신유사옥 기해사옥 등이 세도정권의 권력쟁탈과 연계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은 김용흠의 「19세기 전반 勢道政治의 형성과 政治運營」(『韓國史研究』 제132집, 200

라 권력쟁탈과 연계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옥은 전국에 걸쳐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을 대규모로 처형하거나 귀양 보냈으며, 이에 따라 실학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서학에 대한 독서를 극도로 위축시켜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보는 물론 19세기 들어 급박하게 돌아간 서양 제국주의 동향 전반에 대한 이해 자체를 차단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西敎를 전도하고 신앙하는 규모는 부단히 확산되었다. 교황청에서 조선을 직속 포교지로 지정하여 파리의방선 교회에 전교를 위임한(1824) 이래 브뤼기에르(Bruguière. 1831)를 비롯하여 유방제(劉方濟. 1833), 모방(Maubant. 1836), 앙베르(Anvers. 1836), 샤스탕(Chastan. 1837), 페레올(Ferréol. 1845), 다브뤼(Daveluy. 1845), 베르뇌(Berneux. 1856) 등 여러 선교사가 입국하여 전교활동에 나섰고, 김대건(1821~1846), 최양업(1821~1861), 최방제(?~1837) 등을 유학시켜 조선인 신부로 양성하였으며, 이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전교활동에 투신함으로써 1800년대 초기 약 3천여 명이던 신도가 1830년대에는 6천여 명, 1850년대에는 1만 여명, 고종이 즉위할 당시인 1860년대에는 약 2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¹³⁾

뿐만 아니라 西敎는 중국에 진출해 있던 제국주의 군사력과 연계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신유사옥(1801) 직후 黃嗣永帛書에서 수백 척의 군함과 5~6만의 군대로 조선 조정을 굴복시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은¹⁴⁾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일이

6) 202~203, 208~209쪽, 박현모의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國際政治論叢』 제44집, 2004) 18쪽 등 참고.

13) 천주교도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일정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1책 277쪽의 1789년 신자 1000여명, 2책 291쪽 1836년 무렵 6810명, 3책 161쪽 1850년 11000명, 3책 198쪽 1857년 15206명, 3책 200쪽 1865년 23000명 등을 참고하였다.

14)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黃嗣永帛書 陳奏使行謄本」, “倘得海舶數百艘 精兵五六萬 多載大砲等利害之兵器 直抵海濱 奉行主罰 則全國震駭 不敢不從 舶數人

거니와, 병오사옥(1846) 때 페레올(Ferréol) 주교의 요청으로 프랑스 동양함대 군함 3척이 실제 홍주 해역에 진입하여 선교사의 학살 책임을 묻고 통상을 요구한 것, 병인양요(1868)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여 만행을 자행한 것 등은 모두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19세기 서교의 문제는 이미 국내적 대응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제국주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었다. 이런 미증유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당면한 두 번째 화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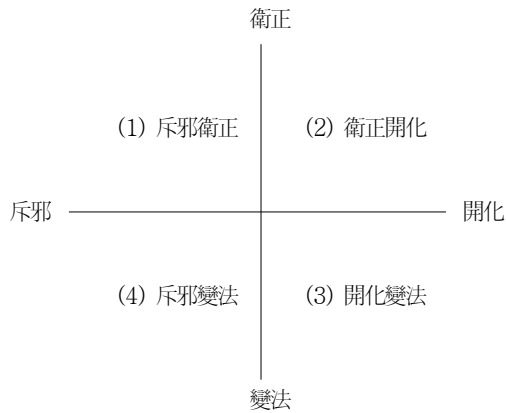
III. 지식인의 일반적 動向

고종이 즉위할 무렵(1863) 조선은 이런 화두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내정의 경우 홍경래 난(1811) 이래 빈발하던 민란과 역모사건이 전국 70여 고을에 걸친 임술민란(1862)으로 다시 불거져 나왔고, 이는 다시 光陽民亂(1869)과 동학교도 李弼濟의 난(1871)으로 이어졌다. 서학과 외세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해군의 동경만 진입과 일본의 개항(1854), 러시아의 남진과 愛琿條約(1858), 애로우호(Arow號) 사건과 천진조약(1858), 영국 프랑스의 북경 침략과 북경조약(1860) 등 제국주의 침략이 바로 턱밑에 다가와 있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의 대동강 진입(1866)과 로즈(Roze, P.G.)가 이끄는 프랑스군의 강화부 침탈(1866), 유대계 상인 오페르트(Oppert)의 南延君 묘지 도굴(1868) 등이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대응 방식은 다양하였다. 내정의 경우 기존의 國是와 國法 敎學 外交 등의 골간을 엄정하게 고수하고자 하는 극단적 위정론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체제를 재정립하고자

數 能如所說則大善 若力不及 則數十艘五六千人 亦可用矣”

하는 급진적 변법론에 이르기까지, 서학과 외세의 경우 전래의 華夷論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극단적 척사론부터 시급히 문호를 개방하고 萬國公法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세계의 일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극단적 개화론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위정과 변법, 척사와 개화 두 중심축을 근간으로 일정하게 교직된 어느 한 부위에 자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1. 斥邪衛正 계열

척사위정 계열의 지식인으로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던 전통 儒林이다. 당시 유림의 실상은 1941년 尹榮善이 편찬한 『朝鮮儒賢淵源圖』¹⁵⁾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윤영선이 약 14년에 걸쳐 전국 유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儒賢이라고 할 만한 인

15) 尹永善, 『朝鮮儒賢淵源圖』, 東文堂, 1941년.

물 약 11484명을 師承關係에 따라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 이 가운데 19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인물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 ① 洪直弼(1776~1852) 계열 : 도합 574명. 서울 출신, 거주.
홍직필 문인 112명, 홍직필 재/삼/사전 문인¹⁶⁾ 462명 : 李趾秀系 225명, 趙秉惠系 67명, 蘇輝冕系 64명, 閔胄顯系 29명, 韓思奎系 19명, 金在義系 19명, 田秉淳系 21명 등
- ② 柳致明(1777~1861) 계열 : 도합 237명. 경북 안동 출신, 거주.
유치명 문인 155명, 유치명 재/삼/사전 문인 82명 : 李致休系 11명, 李誠弼系 10명, 李震相系 11명, 郭鍾錫系 37명, 張錫英系 2명, 李承熙系 1명, 文載熙系 1명, 李漢龍系 9명 등¹⁷⁾
- ③ 李恒老(1792~1868) 계열 : 도합 1013명. 경기 양평 출신, 거주
이항로 문인 76명, 이항로 재/삼/사전 문인 937명 : 金平默系 152명¹⁸⁾, 崔益鉉系 785명
- ④ 許 傳(1797~1886) 계열 : 도합 362명. 경기 포천 출신. 서울 거주.
허전 문인 263명, 허전 재/삼전 문인 99명 : 李炳壽系 55명, 李種杞系 31명, 曹秉萬系 12명 등
- ⑤ 奇正鎭(1798~1879) 계열 : 도합 839명. 전북 순창 출신. 전남 장성 거주.
기정진 문인 233명, 기정진 재/삼/사전 문인 606명 : 奇宇萬系 408명, 鄭義林系 160명, 高光善系 100명, 吳駿善系 37명, 鄭河源系 22명, 奇參衍系 21명, 鄭時林系 20명, 安重燮系 7명, 朴載根系 16명, 鄭載圭系 17명, 朴魯述系 13명, 金龜系 12명 등
- ⑥ 任憲晦(1811~1876) 계열 : 도합 183명. 충남 아산 출신, 거주
임헌회 문인 114명(田愚제외), 임헌회 재/삼전 문인 69명 : 申得求系 16명, 鄭在弼系 15명, 柳相浚系 14명, 李承旭系 10명 등
- ⑦ 宋秉璿(1836~1905) 계열 : 도합 1199명. 대전 회덕 출신, 전북 무주 이거.
송병선 문인 994명, 송병선 재/삼전 문인 205명 : 盧鍾龍系 31명, 李道復系 28명, 金定中系 19명, 金永台系 13명, 姜日熙系 11명, 李重明系 11명,

16) 洪直弼의 문인인 任憲晦系는 별도로 처리하였다.

17) 李漢龍은 郭鍾錫의 문인으로 연결된다.

18) 金平默系 三傳門人 67명은 柳重敎-柳麟錫系 58명, 柳濟鎔系 2명, 金容玪系 7명이며, 四傳門人은 柳麟錫의 문인 李秉淵系 13명이다.

鄭東植系 10명 등

- ⑧ 宋秉珣(1839~1912) 계열 : 도합 32명. 대전 회덕 출신, 충북 영동 이거. 송병순 문인 28명, 송병순 재전 문인 4명
- ⑨ 田 愚(1841~1922) 계열 : 도합 1050명. 전북 전주 출신. 繼華島 이거. 전우 문인 966명, 전우 재/삼전 문인 84명 : 金容璫系 12명, 柳確淵系 12명 등. 후자는 문인이 3000명이라고 하였음.

이 책은 기록 내용이 다분히 畿湖 중심적이고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처리한 한계가 있다.¹⁹⁾ 그럼에도 당시 전국에 얼마나 많은 유림이 포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책에서 儒賢이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한 인물만 서울의 홍직필 계열을 비롯하여, 경기도의 이항로와 허전 계열, 충청도의 임헌희와 송병선 송병순 계열, 전라도의 기정진과 전우 계열, 경상도의 유치명 계열 등 약 5489명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18세기 이래 서학에 대한 비판론을 충실히 계승하였고²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는데, 이항로의 「關邪錄辨」, 김평묵의 「關邪辨證記疑」와 「斥洋大意」, 송병선의 「關邪說」, 허전의 「書河濱愼公西學辨後」 등이 모두 그런 것이다.²¹⁾

19) 저자 尹榮善이 서울에서 畿湖地域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책 판권지에 尹榮善의 주소를 京城府 新設町 350-1, 인쇄자 崔相喆과 인쇄소 東文堂의 주소를 全北 長水郡 溪內面 長溪里 289-1로 기록한 데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상도의 경우 상주의 유주목(柳疇睦, 1813~1872), 칠곡의 장복추(張福樞, 1815~1900), 성주의 이진상(李震相, 1818~1886), 안동의 김도화(金道和, 1825~1912) 김흥락(金興洛, 1827~1899), 거창의 곽종석(郭鍾錫, 1846~1919) 등 적어도 백여 명 많게는 천여 명에 달하는 제자를 거느린 학자가 곳곳에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거나 지극히 소략한 데서 이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 洪直弼의 「答老洲吳丈」 「與老洲吳丈」, 吳熙常의 「答洪伯應」과 「雜識三」, 李恒老의 「與柳公始洛文」과 「與金稗章」, 허전의 「書河濱愼公西學辨後」 같은 글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柳致明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그가 南漢朝와 鄭宗魯의 직전제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두 스승의 글을 참고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이래 儒林의 각 계파별 西學批判論은 앞의 주석10번 참고.

21) 기타 鄭在褻(1780~?)의 「題堂獄說後」, 姜命奎(1801~1867)의 「斥邪學」, 金平默(18

이들의 서학과 외세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유교문명과 주자학적 정통성 자체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신념에 근거하였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힘의 원천이라 여겼고, 현실적 승패를 떠나 순교를 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신봉하였으며, 조선왕조 500년 宗社보다 3000년 유교 道統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²²⁾ 그리고 글 제목에 ‘關邪’ ‘斥邪’ ‘洋邪’ ‘洋夷’ 등을 분명히 명시하였듯이 서학과 서양을 유교문명에 적대적인 사악한 이단 혹은 짐승 같은 야만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짐승 같은 오랑캐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하여 主和賣國論을 주창하였고, 西教는 물론 과학문명으로서의 西器까지 완고하게 배격하였으며, 일본 또한 서양의 앞잡이일 뿐이라는 倭洋一體論을 견지하였다.

내정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19세기 이래 부단히 축적되어 온 세도정치의 모순과 삼정문란, 그리고 이에 따라 빈발하는 술한 역모와 민란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壬戌擬策」 「上興宣大院君」²³⁾ 같은 救弊策을 제시하면서 정치와 민생을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하기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표방한 유교국시와 존왕양이, 국왕중심의 전제왕권과 양반관료 중심의 신분질서, 중화 중심적 세계관과 사대교린의 외교정책, 유교경전 중심의 교학체계 등 중세적 통치체제의 골간을 바꾸고자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재정비하는 방식을 통해 내적 안정과 외적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19~1891)의 「關洋七懷」 「策略小辨」 「禦洋論」, 李種杞(1837~1902)의 「擬斥邪疏」, 柳麟錫(1842~1915)의 「道冒編中」, 李承熙(1847~1916)의 「斥洋邪疏」 등도 모두 이런 종류의 글이다.

22) 朴泳孝가 守舊派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開化를 위해 마땅히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말의 대표적 유학자 田愚의 『秋潭別集』에 이와 같은 논리를 피력한 글이 다수 보인다.

23) 「壬戌擬策」(1862)은 조정에서 壬戌民亂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奇正鎭이 올린 대응책이고, 「上興宣大院君」(1866)은 李承熙가 임술민란 이후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장문의 건의안이다.

이런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극력 의견을 개진하였다. 병인양요 직전 강경한 무력 대응책을 제안한 이항로의 「辭同副承旨兼陳所懷疏」(1866)와 기정진의 「六條疏」(1866), 강화도조약 체결을 반대한 최익현의 「持斧伏闕斥和議疏」(1876)와 김평묵의 「絶和疏」(1876), 일본과 결속하고[結日本] 미국과 연계하여[聯美國]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黃遵憲의 『私擬朝鮮策略』 정책을 결사반대한 4차례의 嶺南萬人疏와 전국 유럽의 무수한 상소, 일본과의 和議를 배격하고 예수교를 단절하라고 주장한 송병선의 『辛巳封事』(1881), 이후 衣制 개혁 반대, 갑오개혁 폐기, 을사오적 처단 등 낱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상소문을 연이어 올렸다.

이와 같은 유럽의 상소는 전국에 편재한 유럽집단의 압도적인 비중, 척사위정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논리, 혈연과 학연으로 결속된 인적 연계망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등과 결부되어 한말 국가경영에 다른 어떤 지식인 집단보다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한말의 상황은 이들이 제시한 논리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내적으로 민란을 통해 부단히 표출되어 온 민권 신장의 요구가 심각하였고, 외적으로 서학과 외세 또한 이미 일국적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 신진 지식인들로부터 “옛 습속에 얽매어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어두운 고루한 인물, 평생 옛 책이나 일고 쓸데없는 義理나 논하면서 새로운 이치라고는 공부하지 않는 인물, 그래서 결국 개명한 시대에 하나의 큰 장애물일 뿐²⁴⁾이라고 하는 혹독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였다.

척사위정 계열로 하나 더 거론할 필요가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과 그 측근,

24) 『西北學會月報』 제1호(1908.6), 「賀吾同門諸友」, “今日 我韓 社會에 一般 輿論이 皆謂하되 頑迷固陋하야 舊習을 膠守하고 時宜에 茫昧한 者는 儒林派라 하며, 隱遯自甘하야 潔身을 徒尙하고 民國을 澹忘하는 者는 儒林派라 하며 窮年矻矻하야 故紙를 鑽研하고 新理를 不究하는 者는 儒林派라 하며 假蹇自重하야 義理를 空談하고 經濟를 不講하는 者는 儒林派라 하야 開明時代에 一大 障礙物이 되는 줄로 思量하고 指斥하니 嗟乎라 吾儒家의 本領宗旨가 曷嘗如是哉야”. 원본의 옛말 일부는 필자가 현대어로 옮겼음.

이른바 雲邊人²⁵⁾으로 일컬어진 사람들이다. 운변인의 실체는 황현(1855~1910)의 『매천야록』을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① 가족 : 장남 李載冕(1845~1812), 차남 李載元(1831~1891), 서장자 李載先(?~1881), 만사위 趙慶鎬(1839~?), 둘째사위 趙鼎九(1862~1926). // ② 노론과 안동김씨 견제를 위해 중용한 남인과 북인 : 金世鎬(1806~1884), 柳厚祚(1798~1876), 趙性教(1818~1876), 韓啓源(1814~1882) 이상 남인. 姜滄(1809~1887), 南廷順(1819~1898), 任百經(1800~1864) 이상 북인. // ③ 남인 재상가 자제로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라 대원군의 私인이 된 인물 : 權鼎鎬(생몰미상), 申獻求(1823~?), 蔡東述(1841~1881), 崔鳳九(생몰미상), 韓耆東(韓啓源 아들. 1871문과). // ④ 1881년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을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발각되어 유배 처형된 인물 : 安驥泳(1819~1881), 유후조 손자 柳道錫(생몰미상), 任哲鎬(생몰미상), 丁健燮(생몰미상). // ⑤ 1883년 대원군의 측근으로 지목되어 처형된 인물 : 李源進(?~1883), 李載晚(생몰미상), 李會正(1818~1883), 任應準(1816~1883), 鄭顯德(1810~1883), 趙秉昌(?~1883), 趙宇熙(1841~?), 趙采夏(생몰미상). // ⑥ 대원군 심복으로 많은 사람을 처형하여 洛洞閻邏로 일컬어진 인물 : 李景夏(1811~1891)²⁶⁾

위를 보면 운변인이 대략 ①아들과 사위 등의 가족, ②노론과 안동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중용한 남인과 북인 계열, ③남인 재상가의 자제로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라 대원군의 私인이 된 사람, ④1881년 고종을 몰아내고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한 역모 가담자, ⑤1883년 대원군의 측근으로 지목되어 처형된 인물, ⑥기타 충실한 심복 등이 중심이었음을 알

25) 흥선대원군의 私家人 雲峴宮邊이란 뜻으로, 흥선대원군의 측근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형택의 역주 『매천야록』 상 80쪽, 하 683쪽 등에서 이런 용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6) 임형택의 『譯註 梅泉野錄』 「남인과 북인의 기용」(卷上 37쪽) 「대원군 때 출세한 남인들」(卷上 80쪽) 「운현궁쪽 사람」(卷上 80쪽) 「운현 측근자들의 처형」(卷上 196쪽) 등의 항목을 주로 참고하고, 여기에 거론된 인물과 연계된 여타 기록들을 두루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적 구성에서 일정하게 유추할 수 있듯이,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세도정권 하에서 극도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와 왕권을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통에서 거리가 먼 자신의 어린(12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데 성공하였지만, 여전히 약하고 불안한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안동김씨 가운데 비교적 우호적인 김병학(1821~1879) 김병기(1818~1875) 등을 일부 포용하는 한편, 오래 동안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과 북인 계열을 중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원군이 가장 힘을 기우렸던 일은 서원철폐와 경복궁중건이었다. 서원철폐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지방 유림의 핵심적 근거지를 파괴하여 중앙 집권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들에게 부여된 각종 免稅와 免役 특권을 환수하여 국가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서원을 근거로 자행되었던 온갖 불의와 불법을 일소하여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고종 즉위 직후(1864) 바로 현황 조사에 착수하였고, 1865년 萬東廟 철폐로 시작하여, 미사액서원 일제 철폐(1868), 47개소를 제외한 여타 사액서원 훼철(1871) 등으로 일을 벌여갔다.

경복궁 또한 조선 건국과 동시에 건립한 최초의 왕궁으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집권 2년째인 1865년 營建都監을 설립한 이후 1872년 완공할 때까지 약 8년간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 1년 예산의 몇 곱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비 마련을 위해 當百錢을 발행하고, 願納錢을 받아 벼슬을 팔기도 하였으며, 門稅錢(도성 출입 통관세)를 비롯한 별별 세금²⁷⁾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온 국민적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이 恭親王 주도로 洋務運動을 본격화

27) 지방에서 장정 숫자별로 세금을 매긴 속칭 부랄세[腎囊錢], 농토 넓이에 따른 거둔 수용전(水用錢) 등이 그런 것이며, 願納錢 또한 원성이 높아 怨納錢이라 하였고, 민가의 망가진 술 보습 가래까지 호별로 근량을 정하여 거두어들었다 기록이 『梅泉野錄』에 보인다.

하여 부국강병에 힘쓰고, 일본이 명치유신(1868)을 전후하여 군비 확장에 골몰했던 것과 너무 대조적인 양상이었다.

이 두 가지 일에 비해 척사는 대원군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본래 재야 유림처럼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서학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천주교도였던 金勉浩(1820~1866) 洪鳳周(?~1866) 南鍾三(1817~1866) 등이 프랑스와 연계하여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국내에 있던 다브뤼(Daveluy) 신부를 직접 만나려 하였고, 성공할 경우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의사를 보였으며, 아내와 큰 딸도 천주교신자였다.²⁸⁾ 그런데 왜 척사와 쇄국의 화신이 되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지 때문이었다.

대원군 집권 초기에 운현궁에 천주교가 침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내와 딸이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안동김씨를 견제하는데 중요한 조력자였던 조대비가 천주교를 비난하기에 이르자 척사로 생각을 굳혔다. 척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정치적 적대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척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대단히 많았다. 서원 훼손 문제로 격앙된 유림을 무마할 수 있고, 경복궁 중건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1866년 2월 제1차, 그해 10월 제2차, 1868년 제3차, 1871년 제4차에 걸쳐 서학교도 수천 명과 외국인 신부 9명을 처형하는 대대적인 사옥을 주도하였으며, 중국 공친왕의 수차례에 걸친 문호개방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에 무력으로 맞섰고, 1871년 마침내 전국에 “서양 오랑캐의 침범에, 싸움이 아니면 화친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음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척화비를 세워 쇄국의 화신이 되었던 것이다.

대원군과 운변인의 척사위정은 이렇듯 재야유림과 결이 다소 달랐다. 위정의 핵심이 주자학적 정통론보다 전제왕권 자체에 있었고, 철학과 신념보다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 영

28)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3책, 249~257쪽 참고.

향이 심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운현이....元氣를 훼손하고 백성의 원망을 샀으며, 한갓 토목공사에 매달리고 색목(色目) 편들기로 10년 사업을 삼았으니, 오호라, 이는 時運이었던가? 천년 후에 또한 반드시 이 일을 통탄할 자가 있으리라.”²⁹⁾ 한 비판이 의미심장하다.

2. 衛正開化 계열

위정개화 계열의 위정 또한 척사위정 계열의 위정과 다른 것이 아니다. 조선이 표방해 온 유교국시, 국왕 중심의 전제왕권, 양반관료 중심의 신분질서, 중화중심의 사대외교, 유교경전 중심의 교학체계 등을 가능한 고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서학과 외세에 대응하는 자세는 달랐다.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이 무너지고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실체를 재인식하였으며, 국제적인 상황이 이미 조선의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그래서 위정을 하면서 동시에 開國과 開化를 병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위정의 구체적 함의와 개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견과 변화가 생겼다.

이런 계열의 지식인으로는 먼저 朴珪壽 吳慶錫 劉鴻基 李東仁 등 초기개화론자를 들 수 있다. 박규수(1807~1877)는 조부 박지원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공격을 받아 열하에 피신하고 있던 咸豐帝의 위문 부사로 북경에 입경한(1861) 이래 두어 차례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이 처한 현실과 국제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오경석(1831~1879)은 譯官으로 1853년부터 13차례나 북경을 드나들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의 중국 침략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때마다 『海國圖志』 『瀛環志略』 등 서양 문물을 소개한 책자를 대량으로 반입하였다. 유홍기(1831~?)는 의원이지만 본래 역관 집안 출신으로 동갑내기 오경석과 절

29) 임형택의 『譯主 梅泉野錄』 卷上 78쪽, “대원군의 10년 통치”.

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오경석이 반입한 서적을 통해 중국과 서양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박규수와 오경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개화파의 막후 수장 역할을 하여 白衣政丞으로 일컬어졌다. 이동인(1849~1881)은 부산지역 승려로 일본 혼간사(本願寺) 부산 別院을 자주 왕래하여 일본 사정에 밝았다. 그리고 서울 奉元寺로 옮겨온 뒤(1860년 무렵) 유흥기 김옥균 민영익 등과 자주 어울렸으며, 이후 일본밀사(1879) 조사시찰단(1881) 등으로 일본을 왕래하며 일본통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 박규수 외에는 모두 양반관료가 아니어서 조정 공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박규수가 평양감사에서 한성부윤으로 들어온 시점(1869)을 계기로 하여 영향력 있는 조정대신과 양반자제를 모아 교육하기로 하였다. 철종의 사위 錦陵尉 朴泳孝와 그 형 朴泳教, 영의정 洪淳穆의 아들 洪英植, 참판 徐相翊의 아들 徐光範, 기타 金允植 金玉均 俞吉潐 등이 모두 이렇게 박규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좌의정 李最應의 아들 李載兢, 민비의 조카 閔泳翊, 기타 중인 邊燧, 무관 柳赫魯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마침내 개화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 부류는 고종의 개국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일부 중앙관료와 민비 척족이다. 고종은 1874년(23세) 비로소 親政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결혼을 했을 경우 15세가 되면 친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대원군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친정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원군을 견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쇄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는 일이었다. 이 중 대원군을 견제하는 데는 민비의 척족, 즉 閔升鎬 閔台鎬 閔泳翊 閔應植 등 이른바 四閔과 閔泳穆 閔奎鎬 閔謙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쇄국은 개국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것이 대원군 시대를 청산하고 고종의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는데 유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거둬들인 개국 권유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고,³⁰⁾ 여기에 개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강압 또한

30) 北京條約(1860) 이후 청나라는 국내 사정에 급급하여 조선을 지원할 형편이 아니었

이전과 달리 예사롭지가 않았기 때문이다.³¹⁾

고종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쇄국에서 개국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 때 고종의 측근에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李裕元 李容肅 卞元圭 李最應 趙寧夏 申櫨 등이었다. 이유원(1814~1888)은 이홍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개국 권유를 고종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고, 이용숙(1818~1890)과 변원규(1837~1896)는 역관으로 이홍장의 의견을 고종에게 전달하거나 이유원의 밀서(密書)를 거꾸로 청나라에 전달하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하였다. 이최응(1815~1882)은 박규수와 함께 개국불가피론을 개진하여 조정 공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신헌(1810~1884)은 강화도조약(1876)과 미국과의 통상조약(1882), 조영하(1845~1884)는 영국(1882.4) 독일(1882.5) 등과의 통상조약 체결에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민영목 민규호 민겸호 등 민씨 척족 또한 개국의 유용성을 개진하여 고종의 개국정책 추진을 거들었다.

이렇듯 개국을 추진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東道西器論이다. 동도서기론은 성리학의 道器論을 활용하여 “형이상의 道는 바뀔 수 없지만[不可易], 형이하의 器는 바뀌지 않을 수 없다[不可常]. 그러므로 동방의 道를 지키면서 서양의 器를 수용함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런 논법은 申箕善이 처음 선보인 바 있다.³²⁾ 그리고 金允植이 고종을 대신하여

다. 그래서 李鴻章을 중심으로 일본의 조선 진출을 일시 늦추는 한편 조선에 서구 열강을 끌어들여 均勢之策을 취하게 함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는 물론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31) 일본은 明治維新(1868) 직후 청에 버금가는 군비를 확충하고, 막부 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였다. 조선에 國書를 보내 외교관제 재정립을 요구하고, 중국과 근대적 淸日修好條規(1871)를 체결하며, 國書 수령 거부를 빌미로 征韓論(1873)을 제기하고, 연이어 대만 정벌(1874)과 雲揚號事件(1875)을 유발한 등이 모두 이런 과정의 일환이었다.

32) 『農政新書』(1881) 서문에서 “道란 堯舜 周公 孔子의 도를 가리키니 오랑캐 나라에 가도 버릴 수 없고, 器란 시대에 따라 변하니 백성에게 이로우면 오랑캐 법이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말한 것을 가리킨다. 權五榮, 「申箕善의 東道西器論 研究」(『淸溪史學』 제1집, 1984), 79~80쪽 참고.

작성한 「曉諭國內大小民人」이란 글에서 “그 敎는 배척하면서 그 器를 본받음은 본래 서로 병행하여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³³⁾고 하여 이런 논법을 다시 활용한 바 있으며, 그것이 국왕을 대신하여 작성한 글이란 점에서 고종의 개화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이 공표된 직후 사헌부장령 郭基洛, 과거 급제자[出身] 尹善學, 재야학자 陸用鼎과 高潁聞 등 여러 사람이 이와 비슷한 논법의 상소문을 올려 고종에게 호응하였던 것을 보면 효과가 없지 않았던 듯하다.

하나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화도조약(1876) 체결 이후 각종 해외 사행, 즉 일본 수신사와 조사사찰단, 청나라 영선사, 미국 보병사 등의 일원으로 참여한 인물인데, 우선 각 사행에 참여한 주요 인물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³⁴⁾

1차修信使(1876) : 金綺秀 등.³⁵⁾ / 2차修信使(1880) : 金弘集, 李祖淵, 尹雄烈, 池錫永 등.³⁶⁾ / 朝士視察團(紳士遊覽團, 1881) : 姜文馨, 嚴世永, 趙秉稷, 趙準永, 閔種默, 李奎憲, 永, 朴定陽, 魚允中, 洪英植 등.³⁷⁾ 李商在, 俞吉濬

33) 金允植, 『雲養集』, 卷9, 御製代撰 綸音布諭 9편 중 제6편, 「曉諭國內大小民人」, “斥其敎而效其器 固可以並行不悖也”

34) 제1차 수신사행은 金宣英의 「제1차 修信使 使行之 성격 : 일본 외무성 자료를 중심으로」(서울대 석사논문, 2017), 제2~4차 수신사행은 河宇鳳의 「開港期 修信使行에 관한 一研究」(『韓日關係史研究』 제10집, 1999), 朝士視察團은 鄭玉子の 「紳士遊覽團考」(『歷史學報』 제27집, 1965), 報聘使行은 金源模의 「朝鮮報聘使의 美國使行(1833) 研究(上)」(『東方學誌』 제49집, 1985) 제2장 ‘朝鮮報聘使 美國使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5) 제1차 수신사행(1876.04.04.~06.01)은 正使 金綺秀, 堂上譯官 玄昔運, 李容肅, 堂下譯官 玄濟舜, 高永喜, 書記 朴永善, 軍官 金汶植과 吳顯者, 伴僞 安光默, 기타 하인 등 대략 73명가량 이었다.

36) 제2차 수신사행(1880.05.28.~08.28)은 正使 金弘集, 堂上譯官 李容肅(1차와 중복), 堂上官 李宗懸, 書記 李祖淵, 姜璋, 軍官 尹雄烈, 林泰慶, 伴僞 池錫永, 기타 하인 등 전체 총 58명이었다.

37) 朝士視察團(1881.1~2월~8~9월)은 朴定陽, 趙準永, 嚴世永, 姜文馨, 沈相學, 洪英植, 魚允中, 閔種默, 李현永, 趙秉稷, 李元會, 李東仁 등 위원 12명과 각 위원별 수행원 2명 통역1명 하인1명, 전체 60여명이다. 斥邪派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암행어사로

尹致昊 등은 수행원으로 참가. / 3차修信使(1881) : 趙秉鎬, 李鶴圭 등.³⁸⁾ / 4차修信使(1882) : 朴泳孝, 金晩植, 徐光範, 邊燧 등.³⁹⁾ / 청나라 領選使 : 金允植 등.⁴⁰⁾ / 미국 報聘使 : 閔泳翊, 洪英植, 徐光範, 俞吉濬, 邊燧 등.⁴¹⁾

위에 제시한 사행은 목적과 인적 구성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모두 강화도 조약 이후 개국과 개화를 추진하는 실천적 행위의 일환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행에 참여한 인물은 생생한 해외 사정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그대로 남아 유학하거나 예정에 없던 다른 나라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조사시찰단의 수행원이었던 유길준과 유정수가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 윤치호가 동인사(同人社)에 유학한 것, 미국 보빙사의 일원이었던 민영익 서광범 변수 등이 귀국 길에 유럽을 순방한 것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그리고 귀국 후 개화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한 統理機務衙門(1880) 같은 기관에 근무하기도 하고, 미국(1882.4) 영국(1882.4) 독일(1882.5) 등과의 통상조약이나 제물포조약 체결(1882.7), 海關의 설치(1883), 漢城旬報의 창간(1883)과 운영 등에 실무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문명개화를 지향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하였으며, 일부는 西器가 아닌 西敎의 수용, 衛正이 아닌 變法의 추구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가장해서 파견하였고, 70여 일에 걸쳐 일본의 內務 農商務 外務 文部 司法 工部 陸軍 稅關 등을 조별로 분담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 38) 제3차 수신사행(1881.윤7.07~11.29)은 正使 趙秉鎬, 從事官 李祖淵(2차와 중복), 參事 玄錫運(1차와 중복), 堂上譯官 高永喜(1차와 중복), 李鶴圭, 鄭舜鎔, 金弘培, 趙漢容 등이며, 총원은 불분명하다.
- 39) 제4차 수신사행(1882.07.25.~11.28)은 正使 朴泳孝, 副使 金晩植, 從事官 徐光範, 柳赫魯, 邊燧, 朴齊綱 등이며, 총원은 불분명하다. 이 때 朴裕宏 朴命和 金和元 金和善 金東植 등 10여명이 수행하여 慶應義塾 製皮所 造髹所 등에 유학하였다.
- 40) 청나라 領選使行(1881. 09.26~1882.11.01.)은 正使 金允植, 學徒 20명, 工匠 18명, 기타 하인 등 전체 69명 가량이었다.
- 41) 미국 報聘使는 朝美修好通商條約(1882.5)으로 미국이 特命全權大使를 파견해 오에 따라 1883년 7월 답례 차 보낸 최초의 서양 외교사절단으로, 참가자는 전권대신 閔泳翊, 부대신 洪英植, 종사관 徐光範, 수행원 俞吉濬 崔景錫 邊燧 高永喆 玄興澤 등이다.

3. 開化變法 계열

개화변법 계열은 일본을 포함한 서양을 더 이상 사악한 야만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그래서 西道는 배격하고 西器만 받아들여지는 제한적 수용론에 그치지 않았다. 北伐을 버리고 北學을 택한 것처럼 斥邪를 버리고 學西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세계보편의 문명개화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나라를 지키는 부국강병의 첩경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개화를 위해 중화중심의 사대외교, 유교국시와 전제왕권, 양반관료 중심의 신분질서 등 이른바 東道를 보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변경해야 할 大更張改革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⁴²⁾

이런 계열의 지식인으로는 우선 갑신정변을 주도하여 甲申五賊으로 일컬어진 金玉均, 朴泳孝, 洪英植, 徐光範, 徐載弼 등을 들 수 있다. 서재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기 개화론자였던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의 제자이다. 그래서 박규수의 사랑방을 드나들면서 이미 서양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사행에 참가하여 견문을 넓혀가면서 위정개화적 입장에서 개화변법 방향으로 전환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김옥균(1851~1894)은 이들 중 특히 개화에 집념이 강하였다. 그래서 직접 신사유람단을 조직하여 일본에 갔고(1881.12),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집에 4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많은 토론을 벌였으며, 이후 『箕和近事』를 지어 고종에게 올렸는데, 여기에서 개화변법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 되려하니 조선은 동양의 프랑스 같은 문명국이 되어 완전 자주독립을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반신분제도의 폐지, 신분에 구애 없는 인재 등용,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 관세의 자주화 등을 포함한 大更張改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⁴³⁾

42) 開化變法과 衛正開化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장영숙 「동도서기론의 연구동향과 과제」(『역사와 현실』 제50집, 2003), 김봉렬 「변법개화파의 근대 자주국가수립론」(『백산학보』 82집, 2008) 등에서 거론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43) 『箕和近事』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은 「治道略論」 「朝鮮改

박영효(1861~1939)는 임오군란 직후 제4차 수신사행(1882.7)의 대표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개화변법을 지향하였다. 이 때 일본 조야의 유력인사와 미국 영국 독일 등 구미제국의 여러 외교사절을 만나면서 문명개화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만나 많은 토론을 하였고, 귀국한 이후 약 13만자에 달하는 開化上疏(일명 建白書, 1888)를 올려 개화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피력한 바 있는데, 여기에 신분제도의 철폐, 법치국가의 확립, 자주독립 성취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 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⁴⁾

홍영식(1855~1884)은 조사시찰단(1881.1)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문명개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고, 보빙사(1883.6)의 副大臣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런 생각을 굳혔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는 독자적 외교 자체가 어려움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청은 조선에 이른바 另約三端이란 것을 강요하였다. “조선 공사가 주재국에 가면 먼저 청 공사관에 알려야 한다” “모든 외교모임에는 반드시 청 공사의 아랫자리에 앉아야 한다.”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청 공사와 의논해야 한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⁴⁵⁾ 조선이 청의 屬邦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이를 청산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실재 보빙사로 체류하는 동안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였다.

서광범(1859~1897)은 문과에 급제한(1880) 이후 김옥균이 조직한 신사유람단(1881.12), 박영효를 正使로 한 제4차수신사(1882.7),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1883.5)의 종사관 등으로 해외 현장을 두루 돌아본 바 있다. 그리고 보빙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민영익 변수 등과 함께 유럽 각국을 순방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명개화 쪽으로 생각을 정리

革意見書」 「上疏文」 『甲申日錄』 등을 통해 이런 논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4) 金甲千譯, 「朴泳孝의 建白書」(『한국정치연구』 제2집, 1990) 참고.

4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민족독립운동사 제11권 『한민족독립운동의 기본흐름』 “1) 청일전쟁 이전의 조선에 대한 청일양국의 이해관계” 주석15번 참고.

하였다. 서재필(1864~1951)은 문과에 급제(1882)한 이후 김옥균 서광범 등과 어울리면서 다른 이들보다 다소 늦게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 그리고 김옥균의 권고로 일본 토야마(戸山) 육군학교에 유학을 가서(1883) 문명개화에 심취하였으며. 이후 동생 서재창과 함께 육군학교 유학생들을 이끌고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

이들과 함께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계열의 인물로 볼만 하다. 이들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제시한 綱領에 변법적 내용을 여럿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환국시키고 청에 대한 朝貢을 폐지한다”(제1조) 한 것은 민씨 척족 중심의 事大黨을 견제함과 동시에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독립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제2조) 한 것은 양반중심의 지배체제에 변혁을 시도한 것이며, “大臣과 參贊은 매일 閣門 안에 있는 議政所에 모여 政令을 의결하고 반포한다.”(제13조) “육조 이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은 없애되, 대신과 참찬이 이를 결정한다.”(제14조)고 한 등은 입헌군주제와 내각제적 의사결정 형태를 드러내었다.⁴⁶⁾ 그리고 “국왕을 다른 나라 황제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과거제도를 폐지한다.”는 등을 따로 공표하기도 하였는데,⁴⁷⁾ 이 또한 나라의 독립과 체제변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甲申政變에 참여한 인물(성명 가나다순)

피살 혹은 처형 : 朴泳敎(1849.⁴⁸⁾ 朴泳孝 형), 徐載昌(1866. 徐載弼 동생), 申福模(?), 申重模(1833. 申福模 동생), 吳昌模(?), 尹景純(1858) 尹景完(1860. 별명 尹啓完. 尹景純 동생), 李喜貞(?), 河應善(?), 洪英植(1855) 등⁴⁹⁾.

46) 갑신정변 직후 발표된 政綱은 80여 조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金玉均의 『甲申日錄』 1884년 12월 5일조에 약 14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14항목을 참고하였다.

47) 洪英植이 上奏하여 允許를 받은 國政釐革案의 일부인데, 『井上角五郎先生傳』(東京, 1943)에 수록되어 있다. 李光麟, 「甲申政變 政綱에 대한 再檢討」(『東亞研究』 제21집, 1990) 8쪽 재인용.

48) 生年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

49) 이들 외에 朴泳孝의 하인 小錦綾 崔英植, 朴泳孝의 수신사행을 수행한 金奉均, 金玉

// 망명한 인물 : 金玉均(1851), 朴泳孝(1861), 徐光範(1859), 徐載弼(1864), 邊燧(1861), 申應熙(1859), 柳赫魯(1855), 尹致昊(1866), 李圭完(1862), 林殷明(?), 鄭蘭教(1864).⁵⁰⁾

위에 제시한 인물 가운데 앞에서 거론한 갑신오적과 박영교 변수 윤치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김옥균이 제4차 수신사(1882.7)의 고문 자격으로 일본에 있을 때 입학시킨 토야마(戶山) 육군학교 출신들이다. 그리고 신응희가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서 공부하다가(1883.5) 다시 육군학교에 입학한(1883.10)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육군학교에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공부를 병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차 문명개화 쪽으로 생각을 정립해 나간 듯하다. 그리고 윤치호가 동인사(同人社)에 유학하고(1881), 변수 또한 김옥균의 수행원으로 따라가 교토에서 養蠶과 化學를 공부했던(1882)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두 예외 없이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나 더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2~30대 젊은이었다는 점이다. 신복모 신중모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이 34세, 홍영식이 30세, 서광범이 26세, 박영효 24세, 서재필 21세였고, 나머지 인물 가운데도 박영교(36세)와 유혁로(30세)를 제외하면 모두 20대였으며, 윤치호와 서재창은 겨우 19세였다. 그러니까 2~30대 젊은 일본 유학생 출신이 정변을 주도하였다 하겠는데, 이 때문에 朴殷植은 이들을 싸잡아서 ‘小年黨’으로 일본과 친한 자들⁵¹⁾ 이라고 하였다.

均의 하인 李點丕와 高興宗, 김옥균의 일본행을 수행한 화계사 승려 車弘植, 徐光範의 하인 李允相, 기타 보부상 출신 李昌奎, 양물상 南興喆, 만찬 상인 閔昌洙 등이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지식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생략하였다. 박은숙의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진술기록』(아세아문화사, 2009) 참고.

50) 이들 외에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綾州로 유배당한 尹雄烈, 呂島로 유배당한 申箕善 등이 있는데, 윤웅렬은 거사 직전에 실패를 예상하면서 참여를 미루었고, 신기선은 취조 과정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바 있어서 여기서 제외하였다.

51) 朴殷植, 『韓國痛史』, 제2편 제19장, 「甲申政變」 조항 참고.

이들 가운데 윤치호(1866~1945)는 실제 정변에 가담하지 않았다. 부친 尹雄烈이 실패를 예감하고 극구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사시찰단(1881)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동인사(同人社)에 유학하였고, 이 때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등 일본의 개화선각들에게 수학하였으며, 도쿄대학(東京大學) 철학교수의 부인 밀레트(Millet.L.G)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등 이미 문명개화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다. 그래서 갑신정변 직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상해로 망명하였고, 그곳 中西書院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4년 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1888.9)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 에모리(Emory) 대학 등에 유학하였다.

유길준(1856~1914)도 국내에 있었다면 당연히 정변에 가담하였을 인물이다. 그는 박규수 문하에서부터 정변의 핵심세력과 친분이 깊었다. 그리고 홍영식 윤치호 등과 조사시찰단(1881)의 일원으로 도일하여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 유학하였고, 곧 이어 보빙사(1883)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가서 덤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 유학하였다. 그는 미국 유학 도중 정변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유럽 각국을 돌아본 뒤 귀국하였는데(1885.12), 귀국과 동시에 역시 개화당으로 몰려 체포되었다. 그리고 극형은 면하였지만 이후 약 8년간 가택에 연금되었으며, 이 때 그간의 견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西遊見聞』을 집필하였다.

이들 외에 갑오개혁(1894~5)을 주도한 인물 또한 변법개화 계열이라고 할만하다. 갑오개혁은 청일전쟁(1894.6) 직후 청나라가 물러가고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도한 대대적인 개혁인데, 개혁 내용이 김옥균이 주장한 大更張改革 이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변법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 중국과의 조공관계 청산과 독자적인 연호 사용, 일본식 내각총리제 실시, 과거제도 폐지와 신분차별 타파,公私 노비의 혁파, 사법권 독립과 각종 재판소 설치,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근대식 학교 설치, 공문서 작성에서의 국문 사용 원칙, 태양력 사용 등이 다 그런 예이다.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취한 조치는 갑신정변의 핵심 주동자, 특히 해외로 망명을 떠나 있던 인사를 불러들여 다시 등용하는 일이었다. 박영효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김홍집 내각의 내부대신(1894.7) 연립내각의 총리대신서리(1894.12)를 맡은 것, 서광범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법무대신(1894.7) 학부대신 주미특명전권공사(1895.12) 등을 맡은 것,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중추원고문(1895.12)을 맡고 독립신문 창간(1896.4) 독립협회 창설(1896.7) 영은문(迎恩門) 철거와 독립문 건설(1897.11) 등을 주도한 것, 윤치호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의정부참의(1895.2) 학부협판(1896.2) 독립협회 부회장(1897) 독립신문 사장(1898.2) 등을 역임한 것, 유길준이 연금에서 해제되어 군국기무처의원 내각총서 내무협판 등을 역임한 것 등이 모두 그런 예이며, 정변 때 유배를 당한 신기선이 공부대신으로, 윤웅렬이 경상도 병마절도사로 복귀한 것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갑신정변 주모자가 일본의 후원 하에 다시 등장하여 개혁을 주도한 양상이었던 것이다.

이들과 함께 위정개화 계열의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들도 적지 않게 동참하였다. 金弘集 朴定陽 金允植 魚允中 嚴世永 등과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 또한 이전에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등으로 해외사행에 참여하여 개화에 대한 일정한 식견과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았다. 김홍집이 제2차수신사로, 박정양 어윤중 엄세영이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왕래 하고, 김윤식이 영선사로 중국을 왕래한 것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그래서 갑오개혁을 시작하면서 바로 김홍집은 내각총리를 맡았고, 박정양은 김홍집이 실각하였을 때 그의 뒤를 이은 내각총리, 김윤식은 군국기무처의원 및 외무대신, 어윤중은 탁지부대신, 엄세영은 농상부대신을 맡았던 것이다.

이들이 갑오개혁을 계기로 개화변법 쪽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김홍집(1842~1896)은 개국과 개화에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하였다. 강화도조약 후속 처리를 위해 하나부사(花房義質)와 담판을 벌였고(1879), 제2차 수신사행(1880)의 대표로 도일하여 주일청국공사 何如璋과 수차례 시국토론을 벌였

으며, 『朝鮮策略』 『易言』 등을 반입하여 조정 공론을 개국으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통상조약은 물론, 제물포조약(1882.7), 商民貿易水陸章程(1882.8) 등 주요 조약체결을 주도하고, 마침내 쇄국의 상징인 척화비를 매몰하고(1882.8)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⁵²⁾ 그가 3차례나 내각 총리를 맡은 것은 바로 이런 개국과 개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의지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짧은 기간에 약 500여건에 달하는 개혁을 시도하여⁵³⁾ 개화변법의 중심적 인물이 되었다.

IV. 東學의 자리와 역할

한말 지식인의 동향 가운데 東學은 어디쯤에 자리할까? 동학은 敎名에 이미 西學과 대척적인 관계임을 분명하게 표방하였다. 그리고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동을 서라 할 수 없고 서를 동이라 할 수 없다” “나는 동방에 태어나 동방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天道이지만 배움인즉 동학이다.”⁵⁴⁾ 라고 하여 서학과의 차별성을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다. 최제우(1824~1864)가 이처럼

52) 천주교 포교의 허용은 당초 프랑스와 맺은 朝佛通商修好條約(1886.5) 제9조 2항에 學習或敎會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간접적으로 명시하였는데, 프랑스가 이를 천주교 포교를 허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해석하였고, 이후 구미 제국 또한 이를 포교의 자유를 공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1886년 이후 프랑스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구미제국의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포교를 위해 근대식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벌여나가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53) 제1차 개혁(1894.7) 때 약 205건, 제2차 개혁(1894.12) 때 약 213건, 제3차 개혁(1895.10) 때 약 140여건, 전체 대략 558건 가량이었다.

54) 崔濟愚, 『東經大全』, 「論學文」, “曰然則何道以名之 曰天道也 曰與洋道無異者乎 曰洋學 如斯而有異 如呪而無實 然而運則一也 道則同也 理則非也.....西人 言無次第 書無阜白 而頓無爲天主之端 只祝自爲身之謨 身無氣化之神 學无天主之敎 有形無迹 如思无呪 道近虛無 學非天主 豈可謂无異者乎 曰同道言之則名其西學也 曰不然 吾亦生於東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謂東 東何謂西 孔子生於魯風於鄒 鄒魯之風傳遺於斯世 吾道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동서를 구분하면서 따로 동학을 창도한 것은 서양의 위협과 서교의 침투를 직시한 결과였다.

“또 사리에 어긋난 괴상한 말이 세상에 비등하고 있나니, ‘서양 사람은 도가 이루어지고 덕을 정립하여 그 조화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에 이르렀고, 무기로 공격하여 싸우면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없다. 중국이 불타 없어진다면 어찌 曆亡의 우환이 없겠는가?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도는 西道라 일컬고, 이 사람들의 학은 天主學이라 일컬으며, 教는 聖敎라 하니, 이 어찌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일이 거론해 마지않는다. 그래서 나 또한 두렵게 여겼다.⁵⁵⁾

위의 예문에서 최재우는 서양의 위협이 ‘무기로 공격하여 싸우면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중국이 불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 차례’가 될 아주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글을 쓰기 삼년 전(1858)에 애로우호(Arow號) 사건과 천진조약(1858), 러시아의 남진과 愛琿條約(1858)이 있었고, 1년 전(1860)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침략하여 함풍제가 열하로 피난을 가는 미증유의 사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힘의 원천이 西學이요 西道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는데, 최재우는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동학을 창도하였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안심시키는 輔國安民을 중요한 실천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는 못된 질병이 세상에 가득하여 백성이 언제나 편안할 날이 없으니 이는 또한 상처를 입을 운수요, 서양은 전쟁에 승리해서 공격하고 쟁취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천하가 다 멸망하면 曆亡之歎이 없을 수 없으리니,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안심시킬[輔國安民] 계책을 또한 어떻

55) 崔濟愚, 『東經大全』, 「論學文」, “又有怪違之說 崩騰于世間 西洋之人 道成立德 及其造化無事不成 攻闕干戈 無人在前 中國燒滅 豈可無曆亡之患耶 都緣無他 斯人道稱西道 學稱天主 教則聖教 此非知天時而受天命耶 舉此一一不已 故로 吾亦悚然”

게 내어야 하나.”⁵⁶⁾

위에서 최제우는 서양이 전쟁에 승리하여 못할 일이 없게 되었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천하가 망하고 나면 그 재앙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輔國安民이 절박함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였으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개같은 왜적놈아 너희신명 돌아보라.” “개같은 왜적놈을 하날님께 조화(造化)받아 일야(一夜)에 멸하고서”⁵⁷⁾ 라고 하여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동학은 척사위정 계열의 척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척사위정 계열의 위정은 국왕 중심의 전제왕권과 양반관료 중심의 지배체제, 특히 조선의 건국이념이었던 유교국시와 주자학적 정통론이었으며, 이는 위정개화 계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제우는 양반관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현실이 유교는 물론 불교 도교 등 기존의 어떤 종교나 학설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말세적 상황이라고 보았다. 위의 예문에서 “못된 질병이 세상에 가득하여 백성이 언제나 편안할 날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我國) 운수 가련하다” “내 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 기험(崎險)할꼬” “십이제국(十二諸國:은 세상) 괴질(怪疾)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⁵⁸⁾라고 하여 개벽의 날이 다가오는 말세적 상황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평생(평소)에 하는 근심 효박(淸薄)한 이 세상에, 군불군(君不君) 신불신(臣不臣), 부불부(父不父) 자부자(子不子) 주소(晝宵)로 탄식하니, 울울(鬱鬱)한 그 회포가 흉중(胸中)에 가득하되, 아는 사람 전혀 없어.....매관매작(賣官賣爵) 세도자(勢道者)도 일심(一心)은 궁궁(弓弓)⁵⁹⁾이요, 전곡(錢穀) 쌓인 부

56) 崔濟愚, 『東經大全』. 「布德文」, “我國 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 而天下盡滅 亦不無唇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57) 崔濟愚, 『龍潭遺詞』 「安心歌」에 나오는 구절이다.

58) 모두 『龍潭遺詞』 「安民歌」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참지((富斂知)도 일심은 궁궁이요, 유리결식(遊離乞食) 패가자(敗家者)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風便)에 뜨인(들뜬) 자도 혹은 궁궁촌(弓弓村)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각자위심(各自爲心) 하는 말이 내 옳고 네 그르지.....십이제국(十二諸國:온 세상)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⁶⁰⁾

최제우가 지은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그는 말세적 인식을 한층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어지럽고 각박한[渇薄] 세상,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이 모두 제 역할을 못하는 병적인 상황을 먼저 거론하고, 매관매직하는 세도가나 유리결식하는 敗家者도 피안[弓弓]을 마음에 품고, 풍문에 들뜬 자는 산중에 입산하거나 천주교에 입교한다고 하면서, 이를 모두 개벽이 머지않은 말세적인 징조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그는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廣濟蒼生을 동학의 또 다른 핵심적 실천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동경대전』 「포덕문」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구제하라”⁶¹⁾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광제창생을 하라는 의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유교는 더 이상 광제창생의 방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400년 유교국시를 신봉해온 결과가 대외적으로는 서양의 침범에 속수무책이고, 대내적으로는 民亂과 邪獄이 끊이지 않는 병적인 현실이며, 오랜 공부에도 도를 얻기 어려워 민중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⁶²⁾ “십년을 공부해서 도성입덕(道成立德) 되게 되면 속성(速成)이라 하지마는 무극(無極)한 이 내 도(道)는 삼년불성(三年不成) 되게 되면 그 아니 헛말인가”⁶³⁾라고 한 데서 이런 생각을 엿

59) 弓弓은 『鄭鑑錄』에 등장하는 용어이다. 『정감록』에서는 주로 공간적 의미에서 ‘세상 사람이 바라는 살기 좋은 세상’, 동학에서는 주로 ‘영원한 생명’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

60) 崔濟愚,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 속 한자는 필자가 추가한 것임.

61) 崔濟愚, 『東經大全』, 「布德文」, “受我此符 濟人疾病”

62) 崔濟愚, 『龍潭遺詞』, 「教訓歌」에 나오는 구절이다.

63) 崔濟愚, 『龍潭遺詞』, 「道修詞」에 나오는 구절이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이단으로 배격해온 불교 도교는 물론, 전래의 敬天思想과 민간신앙 요소까지 두루 포섭하여 동학을 창도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동학은 교리 자체가 이미 유교의 틀을 벗어난 변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최제우는 포교를 시작한지 2년이 채 안 되어 邪道亂正이란 죄목으로 처형당하였다.(1864.3)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은 이렇듯 새롭게 정립한 교리를 천하에 펼치는 布德天下, 대외적으로 척사에 근거한 輔國安民, 대내적으로 병든 백성을 구제하는 廣濟蒼生 등을 가장 중요한 3대 실천 목표로 내세웠다. 그래서 척사위정 위정개화 개화변법 등 다른 어떤 계열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척사와 변법에 근거하여 민중 구제를 지향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는 19세기 이래 핵심적 화두로 부각된 내정개혁과 외세의 문제를 그 실천 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국내외 사정을 두루 잘 알기 어려운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였다. 최제우가 포교한 1~2년 사이에 3천여 명의 교도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민중의 염원을 대변한 결과였다.

동학은 제2세 교주 崔時亨(1827~1898) 시대에 와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최시형이 교주로 있던 시대(1863~1897)는 우선 동학의 가치를 주목하기에 유리한 면이 많았다. 고종과 일부 중앙관료가 주도하는 개국이 본격 화됨에 따라 척사의 주장 또한 그와 비례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개국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잦은 政變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남에 따라 광제창생의 구호 또한 다른 어느 때보다 호소력이 강하였다. 게다가 프랑스와의 통상조약(1886) 체결을 계기로 하여 사실상 西敎의 포교를 허용함으로써 동학만 특별히 억제해야 할 명분도 사라졌던 것이다.

최시형은 바로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동경대전』(1880)과 『용담유사』(1881) 등을 간행 보급하고, 갈수록 절박한 문제가 되어가는 斥洋과 斥倭의 기치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켰으며, 최제우가 정립한 변법적 교리에 物物天 事事天 事人如天 같은 汎天論의 해석을 추가하여 만민평등을 지향하는 동학의 변법적 성격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松菴 孫天民(? ~1900), 義菴 孫秉熙(1861~1922), 龜菴 金演局(1857~1944) 등 이른바 삼암(三菴)을 비롯하여 朴準承(1865~1927), 吳知永(?~1950), 權秉德(1867~1944), 洪秉箕(1869~1949) 등 이후 동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많은 인재를 얻었고, 이들과 함께 최제우를 신원하기 위한 제1차(參禮驛. 1892.11), 제2차(光化門. 1893.2), 제3차(報恩. 1893.3)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세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제3차 보은집회에는 마침내 전국의 동학교도 약 7~8만 명이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갑오농민운동(1894)은 바로 이렇게 축적해온 동학의 역량이 민중을 주체로 한 사회변혁운동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나온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운동이 전개된 곳이면 어디에나 동학의 핵심적 실천 목표였던 輔國安民과 斥洋斥倭, 이를 다소 변형한 掃除倭洋, 掃破倭洋, 除暴救民 등의 구호가 깃발 혹은 벽보 형태로 게시되었고, 전봉준 또한 供招文에서 동학의 주의가 한 마디로 輔國安民이라 답한 바 있다. 갑오농민운동이 곧 동학을 실천하는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운동은 청과 일본의 개입으로 끝내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주창한 평등의 가치는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 폐지와 신분차별 타파, 공사(公私) 노비의 혁파 등으로 일부 실천된 성과가 있었다.

동학은 3대 교주 손병희(1861~1922)가 天道教를 개창하면서 그 실천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손병희는 갑오농민운동 직후에 道統을 물려받았다(1897). 그리고 세계의 동향을 살피고 동학의 재건을 구상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1901), 이 때 일본에 망명 중인 변법개화 계열의 朴泳孝 吳世昌 權東鎭 등을 만나 토론하고 또 신문물을 널리 견문하면서 칙사에서 개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칙사보다 개화를 통해 선진 각국의 정신적 물질적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국민교화와 국부의 축적 및 외국어능력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긴요한 당면 과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⁶⁴⁾ 그래서

64) 그는 「三戰論」이란 글을 지어 이런 취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첫째 道戰은 선진 각국의 정신적 도전에 응전할 국민교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싸움, 둘째 財戰은 기술과 물질적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재정확보와 富強을 위한 싸움, 셋째

러일전쟁(1904)을 전후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국내 교도들에게 進步會를 구성하여 문명개화 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상당수 교도에게 일본 유학을 알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천도교는 그가 귀국한(1906) 이후 바로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동학을 새롭게 재건한 것이었다. 그래서 동서양 구분을 전제로 한 東學이란 말 대신 동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天道란 말을 앞세웠으며, 이후 본격적인 문명개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개화변법 계열의 많은 지식인들이 신분을 초월하여 새롭게 동참하였다. 일본에 있을 당시에 입교한 權東鎭(1903), 吳世昌(1903), 梁漢默(1903) 등을 비롯하여, 귀국 후에도 李鍾一(1906), 金完圭(1910), 崔麟(1911) 등이 새롭게 입교하였고, 이전 동학교도 중에서도 李鍾勳(1883), 權秉德(1884), 羅龍煥(1886), 洪基兆(1886), 羅仁協(1891), 洪秉箕(1892), 朴準承(?), 林禮煥(?)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는데, 이들은 이후 모두 손병희와 함께 기미독립선언 33인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학은 이처럼 손병희가 척사에서 개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천도교를 개창하고, 개화변법 계열 지식인을 수용하여 문명개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이들과 더불어 기미독립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빛나는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비판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갑오농민운동을 전후하여 무수하게 쏟아진 척사위정 계열 유림의 비판이야⁶⁵⁾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손병희의 핵심 측근이었던 李容九가 러일전쟁 직후 10만

言戰은 외국 사정을 밝게 알고 의사소통에 원활하여 담관을 해나갈 수 있는 언어 능력 확보를 위한 싸움 등이라고 하였다. 「三戰論」 원문은 東學農民革命資料叢書 『東學道宗釋史』 第二編 第17章 「章呈規則制定及三戰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5) 동학에 대한 儒林의 비판은 李源祚의 「東學禁勅事通諭一鄉文」, 李承熙의 「通諭東學徒文」, 李南珪의 「斥東西邪學疏」, 李晚燾의 「擬請斥東學復書院疏」(代儒生作) 등이 대표적이다. 기타 崔益鉉의 「寄日本政府」, 宋秉瑤의 「答盧應奎」, 柳麟錫의 『雜錄』과 「與姊夫李都事」 등 각종 편지글, 田愚의 「告諭家人門生」, 柳疇睦의 「答李子衡相莘」, 許薰의 「叔父海樵府君行略」, 金澤榮의 「繕工監監役趙君墓碣銘」과 「安孝濟傳」, 黃玟의 『梅泉野錄』과 『梧下記聞』, 李裕元의 「行吏曹判書徐公諡狀」 등에서도 동학에 대한 다양한 비판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넘는 회원의 진보회를 대표적 친일단체인 宋秉駿의 一進會에 통합시킨 것은 동학교도 전체를 친일파로 매도당하도록 만든 뼈아픈 사건이었다.

V. 마무리

본고는 19세기 후반이란 세계사적 격동의 시기에 조선에서 이른바 글을 아는 지식인이라고 할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들이 제각각 시국을 인식하고 대응한 자세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와중에 생겨난 동학의 위상과 역할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9세기 조선이 당면한 화두는 2가지였다. 하나는 내정개혁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西學과 외세에 대한 대응 문제였다. 내정의 경우, 1800년 이래 세도정치가 6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민란과 역모가 부단히 발생하였는데, 이런 심각한 국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당면한 첫 번째 화두였다. 서학의 경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西器의 문제가 신앙을 중심으로 한 西敎의 문제로 나아가고, 국내적 대응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그 배후에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었다. 이런 미증유의 대외 문제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당면한 두 번째 화두였다.

이런 화두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대응 방식은 다양하였다. 내정의 경우 기존의 國是와 國法 敎學 外交 등의 골간을 엄정하게 고수하고자 하는 극단적 위정론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체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급진적 변법론에 이르기까지, 서학과 외세의 경우 전래의 화이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극단적 척사론부터 시급히 문호를 개방하고 萬國公法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세계의 일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극단적 개화론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위정-변법파와 척사-개화 두 중심축을 근간으로 상호 교직된 어느 한 부류, 즉 (1)척사위정 (2)위정개화 (3)개화변법 (4)척사변법 등으로 크게 구분할 만하였다.

먼저 (1)척사위정 계열은 서학과 서양을 사악한 이단으로 극력 배격하면서 조선이 표방해 온 유교국시와 전제왕권,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 중화중심의 사대외교, 유교경전 중심의 교학 체계 등을 그대로 지켜가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런 계열의 지식인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儒林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18세기 이래 척사론을 계승하였고, 유교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였으며, 혈연과 학연으로 결속된 연계망을 배경으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 19세기 후반의 국가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하나는 흥선대원군과 그 측근 중심의 雲邊人이었는데, 이들의 입장은 유럽과 결이 다소 달랐다. 척사의 근거가 유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기반 확충을 위한 정치적 선택의 일종이었고, 위정의 핵심적 내용 또한 유교적 가치보다 전제왕권 강화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일원으로 척사위정을 강행하여 유럽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쳤다.

(2)위정개화 계열은 위정과 개화를 병행하고자 한 입장인데,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위정의 함의와 개화의 정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견과 변화가 생겼다. 이런 계열의 지식인으로는 먼저 박규수 오경석 등 초기개화론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정에 영향력 있는 高官의 자제를 교육함으로써 처음으로 개화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은 고종의 개국정책을 지원한 일부 중앙관료와 민비 척족이 있는데, 민비 척족은 대원군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일부 중앙관료는 조정에 개국불가피론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기여하였으며, 이 때 東道西器論으로 고종의 개국정책을 옹호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각종 해외 사행에 참여한 인물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사행을 통해 변화된 국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고, 귀국 이후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

해 일부는 개화변법 계열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3)개화변법 계열은 서양식 문명개화를 추진함이 부국강병의 첩경이라 여기고, 이를 위해 오래 동안 지켜온 유교적 가치관과 통치체계를 오히려 과감하게 변경하고자 한 입장이다. 이런 계열의 지식인은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정변의 주도자와 윤치호 유길준 등 간접적인 동조자가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갑신정변 당시 2~30대 젊은이였다는 공통성이 있으며, 정변에 실패한 직후 대부분 처형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갑오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갑신정변 직후 해외로 망명한 사람이 특히 많았다. 그리고 김홍집 박정양 어윤중 등 위정개화 계열의 인물 가운데도 동참한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 또한 갑오개혁이 실패한 직후 대부분 처형되거나 다시 망명길에 올랐다.

동학은 서학과 외세에 대하여 척사에 근거한 輔國安民을 가장 중요한 실천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내정에 대해서는 유교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불교 도교는 물론 경천사상과 민간신앙을 두루 포괄한 변법적 교리를 내세워 廣濟蒼生을 도모하였다. 척사위정과 동일한 척사를 지향하면서도 유교적 가치에 근거한 위정은 거부하고, 개화변법과 같은 변법을 지향하면서도 외세 의존적인 개화를 거부한, (4)척사변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동학은 19세기 이래 핵심적 화두였던 내정개혁과 외세의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최제우 당시에 이미 수천 명의 교도가 생겨났고, 제2대 교주 최시형 당시에는 수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1894년 마침내 갑오농민운동으로 구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동학은 3대 교주 손병희가 척사에서 개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天道教를 개창하고, 개화변법 계열 지식인을 수용하여 문명개화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기미독립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역사에 가장 빛나는 족적을 남겼는데, 이와 같은 동학의 변신과 후대적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1월 2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2009
- 강진아역,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소와당, 2009
- 權五榮, 「申箕善의 東道西器論 研究」, 『淸溪史學』 1집, 1984
- 金明昊, 『연암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 김봉렬, 「변법개화파의 근대 자주국가수립론」, 『백산학보』 82집, 2008
- 김용흠, 「19세기전반 勢道政治의 형성과 政治運營」, 『韓國史研究』 132집, 2006,
- 金源模, 「朝鮮報聘使의 美國使行(1833) 研究(上)」, 『東方學誌』 49집, 1985
- 李光麟, 「甲申政變 政綱에 대한 再檢討」, 『東亞研究』 21집, 1990
- 박은숙,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진술기록』, 아세아문화사, 2009
- 朴殷植, 『韓國痛史』, 上海 大同編譯局, 1915
- 박현모, 「세도정치기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國際政治論叢』 44집, 2004
- 尹永善, 『朝鮮儒教淵源圖』, 東文堂, 1941
- 임형택외, 『譯註 梅泉野錄』 上下, 문학과지성사, 2005
- 장영숙, 「동도서기론의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와 현실』 50집, 2003
-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 27집, 1965
- 河宇鳳, 「開港期 修信使行에 관한 一研究」, 『韓日關係史研究』 10집, 1999
- 韓祐旆, 『星湖李漢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崔濟愚, 『東經大全』, 『龍潭遺詞』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1~3책, 2009~2010

Abstract

Korean Intellectuals' Trends and Dong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Hwang, Wee-zoo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at kind of intellectuals were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 how they recognized the political situations and responded to it, and what was the position and role of Donghak (東學) developed amid such situations. The 19th-century Joseon faced two major issues. One issue was to reform the inner politics, and the other was to respond to Seohak (Western Learning). Intellectuals responded to these issues with the following methods, if simply summarized; (1)Repel Wicked and Defend Justice, (2)Defend Justice and Enlighten, (3) Enlighten and Modify Law, and (4)Repel Wicked and Modify Law. (1)Typical intellectuals of the category of Repeal Wicked and Defend Justice included Confucians spread nationwide, and Prince Heungseon and his aides. (2)Intellectuals of the category of Defend Justice and Enlighten included early-time enlightenment seekers, som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dvocating King Gojong's policy of opening the nation to foreigners, and figures participating in various overseas events following the conclusion of Ganghwa Treaty. These advocated the enlightenment policy with the theory of adopting Eastern spirit and

Western technology. (3) Typical intellectuals of the category of Enlighten and Modify Law included the initiators of Gapsinjeonbyeon Reform. They were young people studied in Japan in their 20s to 30s. Another group was the initiators of Gapogaehyeok Reform, and many of them sought asylum overseas right after Gapsinjeongbyeon Reform, and not a few joined forces of Defend Justice and Enlighten. Donghak embraced the position of (4) Repel Wicked and Modify Law. Donghak tried to most ideally resolve the inner political reform and international problems confronting Joseon since the 19th century, and represented the people's ardent longing. So at the time when Choe Je-u, the founder of Donghak, was active, thousands of people followed his belief, and they expanded to tens of thousands when Choe Si-hyeong, the second founder of Donghak, ruled. This movement finally led to Gapo Farmers' Movement nationwide. Afterwards, Donghak, embracing the intellectuals of the category of Reform and Modify Law, pressed forward with civilization reform movement, and led the Gimi Independence Declaration, thus leaving the greatest achievement in Korean history.

keywords:

End of Joseon, intellectual, Repeal Wicked, Defend Justice, Enlighten, Modify Law, Confucians, Choe Je-u, Donghak, Cheondogyo

